「한국지방행정학보」 제19권 제2호(2022. 8): 1-26
DOI https://doi.org/10.32427/klar.2022.19.2.1

공동체주도 발전 사례연구*
- 홍천군 열목어마을 -

A Case Study on Community-Driven Regional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Case of Lenok Village -

이 영 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주저자)
배 수 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Youngkyu Lee / Suho B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tentiality of community-driven development through case study. The case selected in this study is Lenok Village in Hongcheon-gun, Gangwon-do, which is alienated from public services due to its geographical isolation and is regulated for regional development by environment-related laws. Community-driven development in Lenok Village began from resolving the inconvenience caused by the absence of village common facilities. Along with obtaining public funding projects from government ministries, consensus among members about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as suggested by Merchant (2010), has appeared. Through these efforts, Lenok Village has improved the core elements of social capital and has continuously improved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services.

The implications from the case of Lenok Village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formation and agreement of community identity in community development allows a community to adhere to clear goals and directions, thus leading to consistent and voluntary participation. Second, the composition of village organizations, such as closed network proposed by Coleman(1988), becomes the basis for opinions and participation among various organizations in decision-making and participation, thereby resulting in securing transparency, openness, mutual monitoring and expectations, and easing conflicts in advance. Third, social harmony and solidarity among community members can be strengthened only when not only economic but also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re secured in community-driven development.

Keywords: Community-driven Development, Case Study, Village Community, Lenok Village

*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 “공동체 주도 지역발전 사례연구: 홍천군 열목어마을”의 내용을 대폭적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 임(본 논문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BK21FOUR「공감과 혁신을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교육연구단」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관리번호 4199990114294)).

I. 서 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지역의 발전은 쇠퇴한 국력의 복구와 경제개발·성장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외생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가 경제성장이라는 가치 아래에서 이루어진 하향식·외생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은 국가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지역 간 발전의 불균형, 지역 간 양극화, 나아가 공동체의 위기라는 문제를 야기하였다(신윤창·손진아, 2010). 하향식·외생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에 의해 야기된 사회문제들은 지역발전에 있어 공공부문이 아닌 지역주민의 역할과 주민참여를 강조하게 되었다(홍민선, 2011).

특히 농어촌지역은 지역발전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남에 따라 인구이탈, 고령화와 저출산의 인구문제와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 간 호혜관계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합리적 이기주의, 타산적 행태로의 가치 지향으로 인해 옅어지면서 지역소멸, 공동체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정문수·민경찬, 2017; 오순환, 2017). 이러한 가운데 하향식·외생적 지역발전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관여하여 사회·경제적 조건을 극복하려는 공동체 활동이 나타나고 있다(정문수·민경찬, 2017).

기존 지역발전의 문제와 공동체에 대한 기대는 2000년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고 농촌지역 소득창출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정길호·하현상, 2019). 그러나 공동체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공공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가 나타남에 따라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부각됨에 따라 '공동체주도 발전'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다(전대욱 외, 2012). 공동체주도의 발전은 하향식·외생적 지역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이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당면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생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발적·통섭적·동태적인 공동체의 복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김학실,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동체주도 발전의 사례를 선정하여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의 모습을 관찰하고자 한다. 관 주도의 지역발전 대상에서 소외되어 스스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결과가 나타난 농촌마을을 선정하여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와 그 결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동체와 공동체주도 발전

공동체(共同體, community)는 사전적으로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 따위를 같이하는 집단'[1]을 의미한다. Wilkinson(1991)은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요소로 지역성(locality)과 지역사회(local society), 지역중심의 집단행동 과정(process of locality-oriented collective actions)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성은 공동체 구성원이 거주하는 지리적 영역을, 지역사회는 지역성에 기초하여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을, 지역중심의 집단행동 과정은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의 과정을 의미한다(Wilkinson, 1991). 즉, 공동체는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갖추고 공유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전대욱 외, 2012; 김경아·문태훈, 2019). 공동체는 조직의 비전을 지니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적 행위로 형성되며, 독특한 정체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갖는 특징을 지닌다(신윤창·손진아, 2010).

이러한 공동체에 지역의 자원과 지역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이 공동체주도 발전(community-driven development)이다(Wong, 2012; 전대욱 외, 2012; 김학실, 2014; 김경아·문태훈, 2019). 공동체주도 발전은 전통적 측면에서 지역 외부자원에 의존하였던 국가중심 개발의 외생적 지역발전과 지역발전의 주체와 자원을 지역 내부에서 찾는 내생적 지역발전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신내생적 지역발전의 한 형태로서 분류된다(신윤창·손진아, 2010; 박인권, 2012; 김용웅 외, 2014: 59; 김학실, 2014; 박영민, 2014; 이기원·나정대, 2014). 개념적으로 공동체기반 발전(community-based development)의 하위 개념으로서 지역발전의 계획, 관리 및 실행의 측면에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지역발전의 형태이다(전대욱 외, 2012; Merchant, 2010).

공동체주도 발전의 관점은 지역공동체의 삶을 스스로 향상시키는 데 지역공동체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정확한 정보와 자원이 주어진다면 공동체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즉각적인 요구와 문제해결을 스스로 조직화할 수 있다는 능력과 권리를 전제한다(Wong, 2012; 전대욱 외, 2012). 공동체주도 발전은 우리나라의 공동체 복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내생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김학실, 2014). 특히 소외되고 약한 사회구성원을 포함하여 활용될 경우, 빈곤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평가되고 있다(전대욱 외, 2012).

이러한 내생적이고 자생적인 발전은 공동체가 주도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개발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주민들 간 유기적 연대와 호혜성·신뢰 형성, 지역정체성·규범의 강화 등이 자발적이고 통섭적이며 동태적인 발전기제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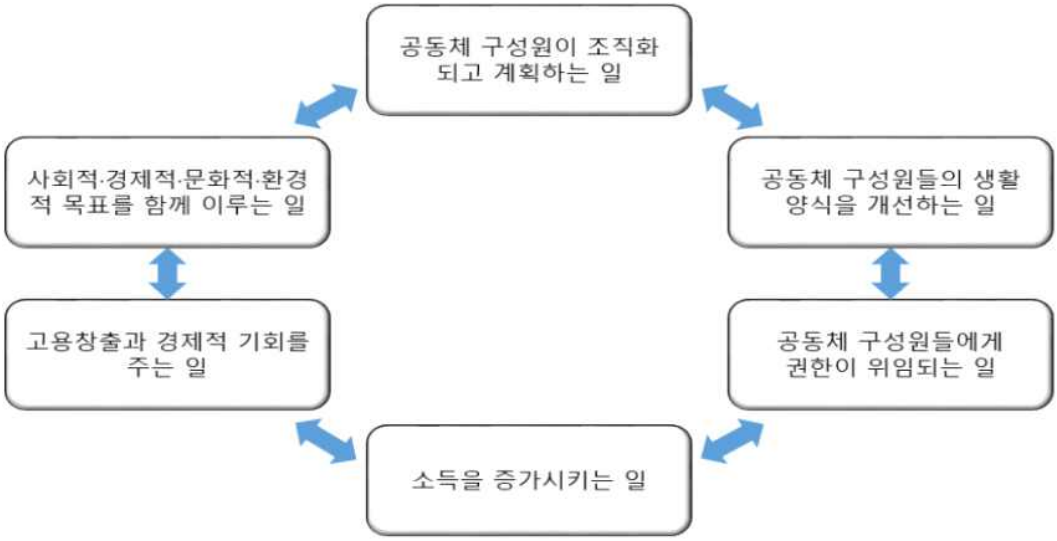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19). 공동체. https://stdict.korean.go.kr (자료접근: 2021년 11월 07일).

작용한다(김학실, 2014). 따라서 공동체주도 발전이 잘 계획되고 수행될 경우, 형평성이나 효율성, 포괄주의 및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촉진하여 큰 성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효과성의 원천은 공동체 주도를 통해 공동체가 당면한 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이를 위한 자원의 배분, 부패 및 자원낭비의 감소, 자원 활용의 극대화, 질적 개선과 유지 등이 나타나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 한편으로 공동체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주도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투명성과 책임감,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전대욱 외, 2012).

공동체주도 발전의 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대로, 경제적 부뿐만 아니라 문화적·정치적·경제적 복리의 증대를 의미한다. 또한 발전의 주체는 공동체의 구성원인 지역주민이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단체나 조직 역시 지역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김학실, 2014).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는 지역발전의 필수 요소로 기존의 국가 중심의 통치구조가 아닌 다원적인 분권적 구조로서 거버넌스와 관련이 있으며(김경아·문태훈, 2019), 따라서 공동체주도 발전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성공적인 거버넌스의 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전대욱 외, 2012).

공동체주도 발전의 핵심요소로 거론되는 것은 공동체의 역량 강화이다(한상일, 2010; 전대욱 외, 2012). 공동체의 역량이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활동에 대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역량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역량 강화는 구성원 또는 공동체 집단의 기술과 능력, 자원, 지원 등을 강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전대욱 외, 2012). 공동체주도 발전과정에서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은 공동체 및 지역의 발전 토대이자,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기여를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한상일, 2010).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는 구조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와 기술이나 조직, 네트워크 등을 확인하고,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이나 조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Atkinson & Will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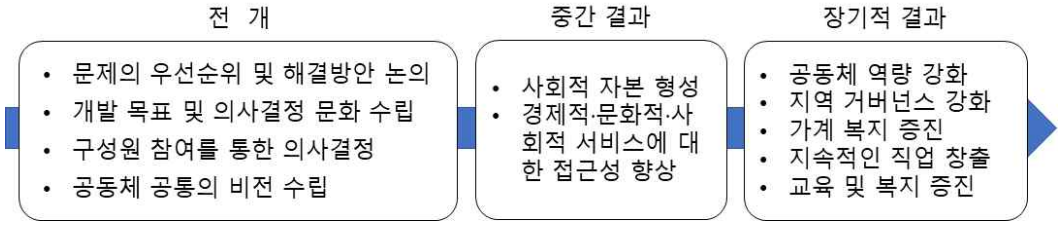
* 자료: Atkinson & Wills(2006: 2-3); 전대욱 외(2012)에서 재인용

〈그림 1〉 공동체의 역량 강화의 구조

이러한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는 구조는 Merchant(2010)가 제시한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과정에서 활성화된다. 공동체는 조직과 조직을 통한 활동으로 역량 강화를 달성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주도의 지역발전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된다(전대욱 외, 2012). 역량 강화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Merchant, 2010; 전대욱 외, 2012에서 재인용). 첫째, 공동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할 과제의 우선순위 선정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이 실현되는 개발 목표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과 문화가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의 주요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와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 이때 공동체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체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돕는 사람으로 '개별협력 활동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공동체의 전문성과 공동체 발전모델을 형성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서 네트워크는 집합적인 주민권력을 형성하여 지역적 차원의 정책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공통의 비전을 갖는 것이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Wong(2012)은 공동체주도 발전의 결과를 중간 결과와 장기 결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앞선 공동체주도 발전의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된다. 지역의 거버넌스가 강화되고, 공동체 구성원의 가계 복지가 증진되며, 지속적으로 직업이 창출되고 공동체 내 교육과 복지가 증진된다(Wong, 2012). 이러한 과정에서 신뢰, 호혜성 및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사용과 접근성이 향상된

다(Wong, 2012). 이러한 전개 및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 자료: Merchant(2010); Wong(2012)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2〉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 및 결과

2. 선행연구 검토

내생적 지역발전과 신내생적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동체주도 발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동체주도 지역발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 〈표 1〉로 정리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공동체주도 발전전략의 틀을 통해 분석한 연구(김학실, 2014), 공동체주도 지역발전의 규범적 전략으로서 지속가능성, 지역자산, 거버넌스, 기업가정신에 기반을 둔 SAGE전략을 제시한 연구(박인권, 2012), 경제적·문화적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고찰한 연구(신윤창·손진아, 2010), 공동체주도 발전전략의 폭넓은 고찰과 국내외 사례를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전대욱 외, 2012), 마을 사례를 통해 마을 공동체가 공동자원과 운영방식을 확보하는 과정을 검토한 연구(정문수·민경찬, 2017)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지역발전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으며,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공동체의 발전과정에서 지역적 연대와 장소적 정체성이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Lasch(1995)의 주장과 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공동체 정체성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와 결과를 사례를 선정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부족한 논의인 마을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자 한다.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다면 보다 생산적인 모델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심상우, 2019)에서, 공동체주도의 발전 과정에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의 조직과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표 1〉 공동체주도 발전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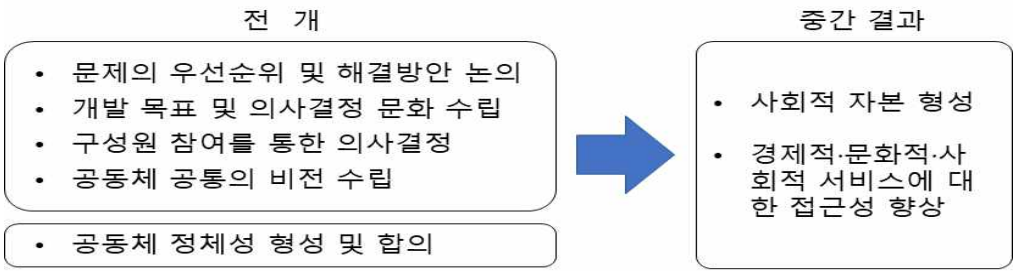
연구자	연구 사례	공동체주도의 발전방향
김학실(2014)	단양군 한드미 마을, 완주군 비비정 마을	다양한 외부 자원 활용, 지역 리더, 높은 수준의 주민참여, 사업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박인권(2012)	-	지역의 잠재된 자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기업가 정신의 증진
신윤창·손진아 (2010)	-	경제공동체 및 문화공동체를 함께 활용한 지역 발전
전대욱 외 (2012)	국내 마을 사례 18개, 해외 마을 사례 5개	지역의 고유자원 활용, 지역 정체성 확립, 지역 인적자본 확충 노력, 주민주도의 리더십 형성, 공공부문의 공동체 지원제도 및 기금 마련 등
심상우(2019)	함양군 세동마을	마을 공동 자원의 형성, 실현가능한 방법의 모색, 공동자원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운영

* 자료: 저자 작성

Ⅲ. 연구설계

1. 연구 분석틀 및 자료수집 방법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 및 결과를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사례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본 연구는 탐색적이고 기술적 사례연구로 발전의 전개 및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례를 관찰하여, 사례로부터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을 공동체의 조직과 활동을 토대로 앞선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 및 결과가 본 연구의 사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기술하며, 선행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진 공동체 정체성을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발전의 결과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에 활용되는 마을공동체 사례의 경우, 공동체주도 발전 과정이 적용된 기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아 장기 결과를 관찰하기에 부족함이 있기에 중간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열목어마을'에 관한 문헌자료와 열목어마을 관련 회의록, 금전출납부, 등록부, 마을 규약 및 정관과 같은 자료[2]와 함께, 연구자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터뷰의 전사물 등을 활용한다. 마을 공동체의 문헌자료는 마을 법인 및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를 허락을 얻어 활용하였다. 열목어 마을에 관한 문헌과 문서자료를 1차적으로 수집하고, 추가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주도적·자발적인 행동과 노력, 발전의 결과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가 소속된 공동체 조직과 활동,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정체성, 발전방향 등을 질문하였고, 인터뷰 대상자의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지 않고 개방형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마을 주민 총 10명으로, 다음 〈표 2〉와 같다. 인터뷰 대상자는 마을 내 여러 조직의 구성원이자 임원으로 열목어마을 발전에 대한 현안과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마을 발전에 관여하고 있는 마을주민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과 인터뷰는 2019년 10월과 11월 2개월 간 이루어졌으며, 총 5회 마을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마을사무실에 비치된 관련 문헌자료를 수집하였고,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2〉 인터뷰 대상자의 인적사항

인터뷰 대상		연령대	성별	직책
1	A	50대	남성	마을 이장
2	B	50대	여성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
3	C	20대	남성	마을 운영위원회 사무장
4	D	50대	남성	전임이장
5	E	50대	여성	부녀회장
6	F	50대	남성	청년회장
7	G	80대	남성	전임 노인회장
8	H	50대	여성	부녀회 총무
9	I	40대	여성	체험프로그램 담당 전문가
10	J	40대	여성	체험프로그램 담당 전문가

* 자료: 저자 작성

인터뷰 자료는 사례연구 주제에 직접적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개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설명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지만, 연구자의 잘못 구성된 질문이나 응답자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연구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유도를 통해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닌다(Yin, 2014: 193). 따라서 마을사무실 및 마을공동체 조직을 통해 수집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여 문헌자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안전성, 중립성, 정확성, 포괄

2) 연구를 위해 수집된 열목어마을 관련 자료는 참고문헌에 별도로 제시하였음.

성을 통해 인터뷰 자료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한 문헌자료와 인터뷰 전사물을 질적 데이터로 구축하여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실제 사회현상을 깊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주요 상황조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활용되는 방법으로(Yin & Davis, 2007), 본 연구에서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발전의 현상과 상황조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 현상에 대해 예측하였던 인과적 연결이 실제로 그러한지를 밝히거나, 무엇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Yin, 2014: 263). 사례 같은 질적 자료는 변수 간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왜 특정한 사건과 현상이 발생하였는지의 관계적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Eisenhardt, 1989). 즉, 사례연구는 사회 현상의 풍부한 심도 있는 기술이라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인과과정에 대한 맥락과 과정의 규명에 적합한 것이다(Flyvbjerg, 2011). 사례연구가 갖는 다양한 강점은 연구의 목적인 공동체주도의 발전 과정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대한 맥락 및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사례에 대한 깊은 통찰과 민감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선택적 편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Yin, 2014: 267). 이에 Creswell(2013)의 나선형 자료 분석 과정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나선형의 첫 번째 고리는 자료에 대한 관리로, 분석을 위한 자료를 적절한 텍스트로 전환하여 정리해야 한다. 두 번째 고리는 텍스트로 정리된 데이터를 통찰하면서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데이터의 탐색과정에서 메모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연상하게 되는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분석과정 전반에서 피드백과 반성의 기초로 사용한다. 이상의 두 고리를 거치면서 열목어마을의 문헌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기록하고 텍스트로 정리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주제인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과정, 정체성의 형성과정, 발전의 결과에 대한 메모 작업을 수행하였다. 세 번째 고리는 자료를 각 주제별로 기술·분류·해석하는 과정이다. 자료의 기술과 분류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분류된 자료의 해석은 기존의 이론적 토대와 연구의 목표에 비추어 해석이 이뤄진다. 본 연구의 자료는 마을 공동체의 조직별, 주요 활동별로 분류하였으며, 다시 공동체 정체성이나 공동체 발전의 결과로 보이는 내용은 따로 분류 및 정리하였다. 마지막 고리는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텍스트나 표, 그림의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사례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사례로부터 배우거나 사례의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자연주의적 일반화(naturalistic generalization)까지 발전시키고자 한다(Creswell, 2013). 본 연구는 앞선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와 결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사례분석을 하고자 하나, 단일사례에 대한 탐색적 사례분석에 속하므로 모집단에 적용하기 위한 일반화의 과정까지 나아가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체주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연구의 목표로 하고자 한다.

3. 사례 선정 및 개관

사례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사례를 선택하는 의도적 표본추출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사례 선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사례 선정의 전략으로서 Marshall & Roseman(2006)이 개념화한 사례 선정의 기준과 함께 공동체주도 발전을 관찰하는 데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새로운 것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하는 기회적 사례로서 선정하고자 한다.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열목어마을은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이자 마을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와 함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사례로서 기회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극단적인 사례로서 이론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현상이 매우 특이하게 나타나는 사례를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사례의 경우, 해당 사례 마을이 스스로 수립한 정체성을 토대로 하위 조직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열목어마을의 주요 활동들은 정체성을 중심으로 서로 연계되거나 정체성을 유지·관리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례 마을은 조건불리지역이자 제설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마을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마을 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주도로 이루어지는 지역발전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셋째, 연구자의 선택적 편의성을 위한 사례 선정으로, 열목어마을은 연구자의 접근성이 높았으며, 사례의 선정에 있어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마을에 대한 사전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의 선택적 편의에 따른 사례 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편의적 사례 선정이 이루어졌다.

넷째, 연구자의 선택적 사례 선정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이론적 적합성과 기준을 제시하여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론적으로 공동체주도 지역발전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와 접근에 비효과적인 경우 또는 소규모 마을인 경우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Wong, 2012; 김학실, 2014), 지리적·행정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동시에 소규모인 마을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사례선정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는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 열목어마을(이하 열목어마을)이다. 열목어마을은 홍천군의 동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일부인 오대산 자락의 산골오지마을이다. 평균 해발 600~700m에 이르는 고지대로 고랭지채소와 산나물을 재배하는 밭농사를 통한 수입이 주를 이루며, 마을 전체를 지나는 1급수인 계방천과 통마람 계곡을 활용한 여름철 숙박업을 병행하는 가구도 일부 있다.

열목어마을을 통과하는 하천은 야생 생물 보호 2급 어종인 열목어의 서식지이다. 열목어는 강원도 문화재 제67호로 지정되어 있어 서식지 전체가 「문화재보호법」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깨끗한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보호종인 열목어를 활용하여 청정한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화하여 마을 이름을 열목어마을로 정하였으며, 열목어마을과 공동체 조직들의 정관 역시 이에 따라 개정하였다.

열목어마을은 과거 양양군 서면에 속해 있었으나 1973년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홍천군 내면에 흡수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박승화, 2011). 열목어마을은 다섯 개의 자연마을로 구성된다. 마을 문헌에는 갈전곡동, 약수동, 대맥동 등의 자연마을로 명칭하고 있으나 현재에는 목맥동, 청도, 조개골, 메밀앗골, 통마람골로 명칭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열목어마을에는 67세대 12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초고령 마을이다(홍천군, 2020).

열목어마을의 발전은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마을법인 설립을 통해 마을 사업과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열목어마을에서 유치한 공모사업은 201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2011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2018년도 창조적마을(종합개발)만들기사업 등을 유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농업 중심의 수입원에서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물의 판매 경로를 새로 구축하는 등 경제적 발전과 함께, 마을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유도함으로써 마을 사회적 자본의 향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명개리, 2017; 명개리, 2018; 명개리, 2019).

Ⅳ. 사례 분석

사례의 분석에서는 먼저 열목어마을의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와 정체성 형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서비스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열목어마을의 공동체주도 발전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여러 공동체 조직을 통해 전개되었기에 공동체 조직과 그 활동을 통한 공동체주도 발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열목어마을에서 공동체 조직과 마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은 봄나들이 축제, 대동회, 체험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환경 개선 활동 등 4개의 주요 활동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열목어마을에 속한 조직들은 각각의 역할과 기능, 구성원 자격 등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과 문제들에 참여하고 마을 사업을 통한 혜택을 받기도 한다. 마을 문제의 해결과정을 살펴보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과 협력적인 조직으로 나타난다. 중심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은 2010년에 출범한 열목어마을영농조합법인(이하

마을법인)과 마을 운영위원회로, 마을의 사무와 활동의 주축을 담당한다 그 외 부녀회나 청년회, 노인회는 협력적인 조직이자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외의 4개 작목반이 있으나 작목반은 각각의 작목 생산 및 출하를 위한 공동 활동을 주로 하며, 마을 현안에 대해서는 조직적 참여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마을회의 경우 마을 법인의 재산과 이익을 마을 전체에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주체적인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열목어마을의 공동체 조직으로서 열목어마을법인과 열목어마을 운영위원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

1) 열목어마을의 전개

Merchant(2010)에 따르면,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과정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개발 목표와 의사결정 문화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 공동체 사업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체 공통의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동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해결을 돕는 협력 활동가가 나타나기도 한다.

열목어마을이 당면한 문제는 지역개발 및 발전에 대한 법적 규제, 공공서비스로부터의 소외, 고령화, 부족한 마을 공동시설, 제한된 가계소득원 등이 존재했다. 첫 번째 문제는 지역개발 및 발전이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열목어마을은 강원도 문화재 제67호인 열목어의 서식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서식지가 개발 규제를 받고 있다.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 전체가 열목어 서식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전역이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열목어마을은 백두대간의 일부인 오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보호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두 번째 장애요소로, 열목어마을은 겨울철 도로 제설이라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일부만 제공받고 있다. 열목어마을의 도로는 홍천군에서 양양군을 이어주는 구룡령로와 마을 내부의 안길인 명개로로 나뉜다. 구룡령로와 달리 마을 안길인 명개로는 공공기관의 제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열목어마을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3]을 신청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아 자체적인 제설 활동을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오지에 있어 경제적·행정적 서비스로의 접근성이 낮고, 부족한 부분을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마을청년층 인구가

---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직접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지원금의 사용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에 사용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매우 적어 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세 번째 장애요소는 마을주민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을회관조차 없는 곳이다. 201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마을회관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마을 공동시설은 노인회관이 유일했으며, 노인회관의 규모마저 작아 불편함이 컸었다.

마지막으로 마을 가계의 소득원이 주로 고랭지 채소 재배를 통한 농업에 그치고 있으며, 판매 경로 또한 온라인 직거래나 마을 단위의 판매 경로가 존재하지 않고 지역농협으로 단일화되어 있었다.

열목어마을은 이러한 문제 중 우선적으로 마을 공동시설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민회의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부터 개선해나감으로써 다른 장애요소를 개선해나가고자 한 것이다.

> "(2008년, 2009년) 당시에 주민회의나 대동회를 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50명씩 참여했는데 30평 남짓한 경로당에서 모여서 주민들이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자리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낮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야겠다는 결론이 났다."
>
> -운영위원장 B씨와의 인터뷰 중 -

공동체주도 발전의 형태가 나타나기 이전의 마을 공동자본은 단순히 대동회나 마을 주민 회의를 위한 운영비 수준이었기에 마을 공동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자본이나 기금으로서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마을회관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열목어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적인 규제와 지리적 불리함, 그리고 마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게 되었다. 즉, 마을의 문제 중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마을의 공동시설이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모사업의 신청과 유치 과정에서 마을 개발의 목표나 비전, 주민 참여 및 의사결정 나아가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열목어마을의 회의록 자료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과정은 공동체주도 발전의 기준이 되는 2010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전후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미 공동체에서 합의된 의사결정 방법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결정 과정은 특정 안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주민의 모든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의결되었다. 주민의 동의는 대부분 안건에 대한 찬성 거수로 진행되었다. 모든 마을주민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한 주민 모두에게 발언 기회가 보장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공공시설 확보가 우선순위가 되었지만, 공모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사업 계획과 목표가 필요하게 되었다. 당시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주민자율에 의해 마을의 지리적·역사적·환경적 입지에서 특성화된 사업을 선정하고 있었다(강원도,

2006). 열목어마을은 강원발전연구원(現 강원연구원)의 자문을 얻어 열목어마을의 규제 원인을 재해석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계획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마을의 장애요소였던 열목어 서식지이자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깨끗한 산림환경으로 재해석되었고, 마을의 이름을 열목어마을로 변경하였다. 마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산림환경을 관리하고 보존하여 지역 발전을 꾀하는 비전이 생겼으며, 체험 또는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구성원 교육과 시설 확보, 지속적인 공모사업 유치 등의 목표가 설정되었다.

새농어촌개발운동 사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마을 법인, 운영위원회 등 새로운 공동체 조직이 출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직에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존에 존재했던 공동체 조직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새농어촌개발운동과 그 이후의 마을 사업의 진행에 있어 핵심주체가 되는 마을 법인과 운영위원회를 토대로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이 협력해주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지속적인 마을 사업의 유치·운영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의 주변 환경을 가꾸는 활동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른 공동체 조직들이 함께 참여·활동하면서 각 조직의 구성원인 마을주민들이 마을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직 차원의 참여와 개인적 참여를 동시에 독려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2)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 및 합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근원이자 타자와의 차별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지은주, 2008). 따라서 정체성은 변화할 수 있으며 공유된 아이디어나 이념의 영향에 따라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이남희, 2005). 따라서 공동체의 정체성 역시 공동체 구성원 간 공유와 합의를 통해 공동체 특유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할 수 있으며, 다른 공동체나 조직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동체 발전과정에 있어 공동체 정체성의 논의는 중요하며, 특히 그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적인 선결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Lasch, 1995). 또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공동체 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공동의 문제의식을 형성하여 참여 동기를 마련하게 된다(신중진·정지혜, 2013; 신중진 외, 2013).

열목어마을은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마을 사업을 고민하면서 자체적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 공동체 구성원 간 공유와 합의를 통해 열목어마을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마을 발전에 장애물로 인식하던 주변 환경을 재해석하여 마을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가꾸게 되었다. 자연환경에 대한 재인식과 활용은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명개리 마을 주민 규약」에 명시되었고 이후 2012년 개정된 「열목어마을 운영 규약」에

다음과 같이 열목어마을의 정체성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 열목어마을의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고유의 미풍양속을 지키며, 마을발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열목어마을 운영 규약」 제1조).

> "(열목어마을은) 주민들이 산림, 자연경관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공동체이다. 산림자원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
> -마을 이장 A씨 -

열목어마을 운영 규약 제1조를 보면, 자연환경과 주변환경을 가꾸는 것이 마을 운영을 위한 첫 번째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후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 마을 발전에 대한 내용을 보여준다. 열목어마을의 정체성은 '자연환경 보전', '도덕적 공동체', '마을 발전' 등의 키워드로 나타나며, 마을 구성원 또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을 중요한 가치로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공동체주도 발전의 결과

1) 사회적 자본의 형성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와 불가분의 관계로,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신뢰, 호혜성 및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참여 활동과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광모, 2014; 조창현·정무권, 2018). 또한 공동체 복원과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발달되기 때문에 이는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간 선순환적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최경애, 2016; 조창현·정무권, 2018).

사회적 자본이 개인적·조직적·사회적 관계에서 생성되어 축적된다는 특성상 사회적 자본의 분석 및 측정을 명확히 판별하기는 어렵다(김순은·권보경,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목어마을이 공동체주도 발전을 통해 형성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공동체 조직과 그 활동을 통해 분석하였다. 신뢰는 사회 전반과 소속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의미한다. 호혜성 및 규범은 구성원 간 호의에 대한 상호 기대로, 공동체 사회의 규범 또는 공공의 가치관을 의미하며 공동의 문제 참여에 대한 구성원 간 호의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공유 등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는 개인 또는 조직 간 연결의 정도로 나타날 수 있다(박혜영·김정주, 2012; 김순은·권보경, 2016; 최경애, 2016; 조창현·정무권, 2018).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는 신뢰, 호혜성 및 규범, 네트워크이며(Putnam, 1993), 구성원 간

신뢰 및 호혜성이 높고,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축척된 것으로 본다(최경애, 2016; 조창현·정무권, 2018). 사회적 자본 중 신뢰는 열목어마을의 주요 활동을 통해 형성되어 갔다. 즉, 주요 활동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참여를 자율에 의해 독려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의사결정이 신뢰를 형성·강화하게 된 것이다.

봄나들이 축제와 환경 개선 활동은 구성원의 참여에 있어 개인과 조직의 참여와 봉사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 마을 축제인 봄나들이 축제는 개·폐막식과 축하공연, 노래자랑과 같은 보편적인 지역 축제의 구성이 아닌 체험 프로그램과 주민 초청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마을의 고령자를 초청하고, 그 준비 및 운영의 전 과정에 마을 법인과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열목어마을의 조직들이 참여하고 봉사한다.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특징적 활동인 환경 개선 활동 역시 자율적 참여가 독려되며, 이러한 활동에는 노인회의 여름철 계도활동, 1사1촌 기업의 봉사활동, 부녀회의 폐비닐 수거, 마을안길 예초활동 등이 있다. 노인회의 계도활동은 여름철 피서객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노인회의 계도활동을 말한다. 열목어마을은 LG서브원이나 삼성LED사업부와 같은 기업과 1사1촌을 맺고 있으며, 해당 기업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으로 환경 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때 마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기업의 봉사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환경 미화 활동을 수행한다. 부녀회의 폐비닐 수거 역시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녀회가 아닌 다른 조직과 마을주민으로부터 차량과 인력을 지원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겨울철을 제외한 마을 안길의 예초작업이나 화목 가꾸기 등의 활동은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 개선 활동은 마을 운영위원회가 각 활동마다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부녀회에서 식사를 지원하기도 한다. 열목어마을의 환경 개선 활동은 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이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은 열목어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사례로 선정되고 있다.

열목어마을의 의사결정은 대동회, 봄나들이 축제의 준비 과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사결정은 구성원 간 신뢰를 보장한다. 회의록을 통해 살펴본 열목어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회의 안건들은 마을 운영위원장의 발의와 진행 아래 참석한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의사결정은 참석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한 없이 발의 및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마을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의결된다.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는 해당 안건에 대해 정리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참석한 주민의 찬성 거수로 의결된다. 즉,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보장되며,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의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회의록이 마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한 마을 지도자에 대한 마을 주민의 신뢰와 지지는 고령화 및 적은 인구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지도자 스스로 성찰하게끔 하여 신뢰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상기시키고 제고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 "주민의 지지와 신뢰는 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부담감이자 큰 힘이다. 마을 회의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주민들은 이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제시하는 안건들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면 찬성해주지만,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지적한다. 주민의 지지는 때로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해준다."
>
> - 마을 운영위원장 B씨 -

호혜성 및 규범 측면에서 열목어마을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정체성을 반영한 마을 규범이 존재하며, 마을의 여러 활동에 대해 마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참여가 독려됨에 따라 개인 또는 조직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로 나타난다. 환경 개선 활동의 경우, 각각의 주체가 되는 마을 조직이 존재하더라도 주민 참여의 독려는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가 마을 조직 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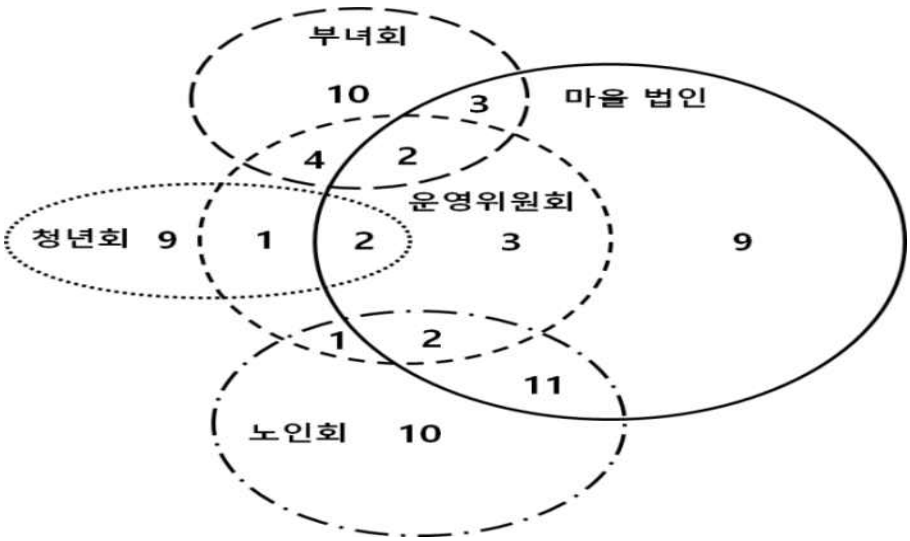
마을 공동의 문제에 대해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독려되고 마을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마을 주민 간 참여에 대한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해당 마을 조직만의 활동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 간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마을 주요 활동에 대해 대부분의 마을 조직들이 함께 참여하여 마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적·물적 자원이 공유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부녀회의 폐비닐 수거 활동으로, 부녀회가 아닌 다른 조직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개인의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물적 지원활동은 마을 운영위원회가 나서서 개인의 봉사와 참여를 안내하고 독려함으로써 마을활동에 여러 마을 조직과 개인들의 자원이 보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 열목어마을은 매우 폐쇄적이다. 열목어마을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부 단체 또는 조직은 1사1촌 기업이나 발전 초기에 도움을 준 강원발전연구원 등이 있다. 면사무소, 군청 등 공공기관과의 관계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정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한다. Coleman(1988)은 폐쇄적 네트워크가 구성권 간 의무의 이행과 기대, 상호 감시를 원활하게 한다는 입장으로 '강한 연대의 힘'을 강조한 반면, Granovetter(1995)는 개방적이고 다른 집단과의 약한 연대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열목어마을의 발전에 있어 마을 외부의 네트워크 참여자와의 연대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Coleman(1988)이 주장한 폐쇄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열목어마을 조직들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전체 주민 120명 중 55.8%인 67명이 여러 조직에 걸쳐 중복되어 소속되어 있음을 다음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열목어마을이 고령인

구가 많고 외지에서 생활하는 일부 주민 등을 고려할 때, 열목어마을의 주민들은 하나 이상의 조직에 속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마을주민의 경우 어떤 조직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마을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회의록이나 등록부 등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특징은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안건과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구조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을 운영위원회의 경우 마을법인을 비롯하여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에 소속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을법인의 구성원이 9명이나 참여하고 있고, 법인 구성원이면서 부녀회와 청년회, 노인회 구성원이 각 2명씩으로 마을 운영위원회에 마을에 존재하는 공동체 조직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이다. 마을 법인 또한 부녀회, 청년회, 노인회에 소속된 구성원들을 공유하고 있고 다른 조직에 속하지 않은 마을 주민들도 9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원의 공유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조건이 상호배타적인 부녀회와 청년회, 노인회가 마을 문제해결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법인과 마을 운영위원회에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여러 조직 간 의견과 참여가 공유되는 밑거름이 되며, 향후 마을사업 및 활동과 행사에 있어 여러 조직 간 협력과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열목어마을의 행정적 사무를 담당하며,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운영위원회에 여러 조직과 다양한 마을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보다 원활한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조직들이 마을 운영위원회와 법인의 활동을 함께 참여함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마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소수의 마을주민만의 혜택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배분되어 주민 갈등을 완화하는 장치가 된다.



*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2019년도 열목어마을의 공동체 조직 구성원의 분포

2)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서비스로의 접근성 향상

경제적 측면에서 열목어마을의 경제 구조는 농업 및 소규모 숙박업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었다. 문화적으로는 자체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여 즐길 문화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외부와의 교류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제약이 심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마을 회관과 같은 공동 시설이 부재하여,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열악하였다.

그러나 2010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으로 한 열목어마을의 발전은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수입원과 그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모사업을 유치하며 마을 사업으로 선택한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과 함께, 농산물의 온라인 또는 유선 판매 경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은 지역 개발에 장애가 되었던 자연환경을 활용한 사업으로 공동체 정체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마을의 독특한 자원으로 탈바꿈한 깨끗한 자연환경과 산림을 무대로 하고, 전문가 교육을 받은 마을주민들이 체험 및 치유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구분하지는 않으나, 체험 프로그램으로 산촌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으로 트리클라이밍, 숲밧줄놀이, 꽃차 체험 등이 있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인체의 면역력 향상 및 건강 증진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마을사업비를 활용하여 희망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현재 11명의 마을주민이 전문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열목어마을의 장기적인 목표 중 하나는 마을주민 모두가 전문가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농림축산식품부, 2018), 현재에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구성원의 전문성은 마을 내에서의 체험 및 치유프로그램 외에도 외부에서 강연자나 체험활동 지도자,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을 지니게 된다. 이는 농업 중심의 산골마을에 새로운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열목어마을의 체험 및 치유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를 비롯한 농촌진흥청, 소방청 등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2018년도 마을법인 금전출납부에서는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흑자 수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2019년 11월 21일, 조달청에 체험활동서비스로 3년간 상품등록(물품분류번호 86141796)이 이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내 마을단위 최초로 농촌치유체험이 상품으로 등록된 사례이며 열목어마을의 공동체주도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열목어마을은 봄나들이 축제와 같은 마을 축제 등을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형성하였고,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과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기존의 봄나들이 축제는 과거 인근 지역인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서 2006년 '백두대간 산나물 축제'로 시작한 축제가 2010년 농협과 내면 면사무소(現 내면 행정복지센터)의 개최와 후원으로 이어지던 것으로, 2016년 축제 관광객의 소비행태 변화, 인근 지역의 유사한 축제

개최로 인한 경제성의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유주현, 2017/03/20). 이에 열목어마을 운영위원회는 2017년 4월 기존에 폐지되었던 산나물축제를 마을축제로 재탄생시켜 매년 개최하고 있다. 봄나들이 축제의 준비와 운영은 마을의 모든 조직 구성원들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이루어지며, 운영 경비 또한 마을공동기금을 사용한다. 특히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을 위해 노인회를 통해 마을의 고령자들을 초청하고, 축제상품권을 무료로 지원하여 고령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마을축제의 향유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층을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함으로써 봄나들이 축제를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향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봄나들이 축제 외에도 열목어마을은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를 열고 천렵(川獵) 등의 활동을 마련하여 주민 화합과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지도자를 비롯한 일부 마을주민들의 찬조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화 활동을 개최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봄나들이 축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화 활동의 개최는 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인터뷰에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는 재미와 흥미가 참여와 화합에 대한 긍정적인 강화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려면 문화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 “1차적으로는 마을 공동체가 잘 되려면 주민이 잘 모여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돈이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10년을 지나와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어떤 마을의 중요한 핵심, 전통이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품앗이 같은 것, 이런 걸로 모여지는 것이 (마을 공동체를) 더 지속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냥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놀이든. 그런 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마을 공동체가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
>
> - 마을 운영위원장 B씨 -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강원도 홍천군 열목어마을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Merchant(2010)과 Wong(2012)의 관점을 통해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자 하였다. 열목어마을의 발전과정이 약 10년 정도이기에 Wong(2012)이 제시한 공동체주도 발전의 장기적 결과를 확인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중간 결과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마을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확보한 회의록, 금전출납부, 등록부, 정관 및 규약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였고, 마을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양자 간 자료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한 공동체주도 발전의 결과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들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하고 공개된 의사결정 및 자율적인 참여와 지도층에 대한 지지는 마을과 그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지역적 정체성이 반영된 마을 규범과 함께 자발적인 참여의 독려, 가능한 수준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유는 호혜성 및 규범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폐쇄적 네트워크로 나타나는 조직들과 그 구성의 형태는 신뢰성과 투명성, 기대 등을 향상시키며,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향상은 공동체의 발전과 더불어 선순환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경애, 2016; 조창현·정무권, 2018).

공동체주도 발전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비스업으로서의 경제구조를 창출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업 생산물의 판매 경로를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해 새롭게 확보하여 경제적 향상을 기하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봄나들이 축제를 비롯한 자체적인 문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동체 화합 및 연대가 강화될 수 있는 행태들을 볼 수 있다.

열목어마을의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이 조달청에 상품으로 등록되고, 환경 개선 활동이 표창을 받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열목어마을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체주도 발전에 공동체 정체성의 자체적인 형성과 합의는 마을의 주요 활동과 조직들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마을 규약 및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열목어마을의 정체성은 마을 활동들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 활동의 주체인 여러 마을 조직들의 지침이 되고있다. 예컨대,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 개선 활동이 전개되고, 잘 보존되고 관리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은 열목어마을의 경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인 주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즉, 구체적인 지역적 정체성은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견지할 수 있게 하며, 일관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Coleman(1988)이 제시한 폐쇄적 연결망과 같은 마을 조직의 구성은 부족한 인적 자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의사결정 및 참여에 있어서 조직 간, 구성원 간 의견과 참여가 공유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공개성, 상호 감시 및 기대를 확보하며, 갈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공동체주도 발전에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측면이 함께 확보되어야 비로소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화합과 연대가 강화되고 장기적인 발전이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체주도 발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질적 사례연구의 본질적인 한계와 자료조사 및 분석상의 한계, 사례가 가지는 한계 등이 존재한다. 먼저 단일 사례를 대상으로 하기에 대안적 관점이나 비교 사례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자료조사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이 마을의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사

1촌 기업의 담당자나 주변의 마을공동체나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 외부 행위자의 시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사례로 선정한 열목어마을이 공동체주도 발전의 기간이 약 10년에 불과함에 따라 중간 결과만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를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참고문헌〉

강원도. (2006).「새농어촌건설운동」.

김경아·문태훈. (2019). 지역공동체 주도 발전에 대한 거버넌스 특성 분석: 과천화훼단지를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1): 1-29.

김용웅·차미숙·강현수. (2014).「新 지역발전론」. 경기: 도서출판 한울.

김순은·권보경. (2016). 도시공동체의 주민자치와 사회자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 30(1): 41-76.

김학실. (2014). 지역공동체 위기에 대응한 공동체주도발전전략(Community-Driven Development)에 관한 연구.「한국위기관리논집」, 10(5): 179-201.

농림축산식품부. (2017).「2017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 (2018).「제5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수상마을 사례집」.

명개리. (2017).「열목어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강원도: 명개리.

명개리. (2018).「열목어가 회귀하는 마을. 명개리 열목어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강원도: 명개리.

명개리. (2019).「소방관 심신건강 농촌치유프로그램 현장적용 결과보고서」. 강원도: 명개리.

박승화. (2011).「내고향 내면」. 강원도: 명개리.

박영민. (2014).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딜레마.「현대사회와 행정」, 24(1): 97-118.

박인권. (2012).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 지역발전전략의 규범적 모형: SAGE전략.「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4): 1-25.

박혜영·김정주. (2012).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축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3): 47-66.

신윤창·손진아. (2010). 지역발전이론의 비판적 이해와 지역공동체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비교정부학보」, 14(1): 217-244.

신중진·김일영·배기택. (201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연구.「국토계획」, 48(6): 43-56.

신중진·정지혜. (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만들기의 역할과 과제.「정신문화연구」, 36(4):

59-96.

심상우. (2019). '공동체를 넘어선 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53: 364-397.

오순환. (2017). 공동체 환경변화와 축제에 대한 담론. 「관광학연구」, 41(6): 73-89.

이광모. (2014). 지역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유교적 관점: 사회자본 형성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6(2): 231-253.

이기원·나정대. (2014). 신내생적 발전론의 관점에서 본 지역개발사업 평가체계 고찰. 「지역사회학」, 15(2): 95-126.

이남희. (2005).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구축 방안 - 문화유산의 활용과 가치공유를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11: 91-113.

전대욱·박승규·최인수. (2012). 「지역공동체주도의 발전전략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길호·하현상. (2019). 신내생발전전략 관점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근혜 정부 시기의 중앙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377-409.

정문수·민경찬. (2017). 농촌 마을공동체발전과 공동자원 관리: 함양군 송전리 세동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7(3): 243-273.

조창현·정무권. (2018).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SDGs)을 위한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네팔 티카풀(Tikapul) 지역주민 의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8(3): 92-122.

지은주. (2008).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지역 정체성과 민족주의. 「신아세아」, 15(3): 116-143.

최경애. (2016).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형성. 「공공사회연구」, 6(4): 76-120.

한상일. (2010).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 「창조와 혁신」, 3(1): 223-246.

홍민선. (2011). 지역문화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전략. 「한국행정사학지」, 28(0): 171-201.

홍천군. (2020). 「통계연보(2019년)」. 강원도: 홍천군.

Atkinson, R., & Willis, P. (2006), *Community Capacity Building. A Practical Guide*. Paper #6 Housing and Community Research Unit. School of Sociology and Social Work, University of Tasmania, Australia.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Creswell, J.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Eisenhardt, K. M. (1989). Building Theories from Case Study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532-550.

Flyvbjerg, B. (2011). Case Study. In Norman Denzin and Yvonna Lincoln(Eds.).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Granovetter, M. S. (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2nd e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sch, C. (1995). *The Revolt of the Elites and the Betrayal of Democracy*. New York NY: Norton.

Marshall, C., & Roseman, G. B. (2006).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Merchant, F. (2010). *Analyzing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in Afghanistan Using Yhe National Solidarity Program Case Study.* Unpublished MPhil, University of Cambridge: UK.

Putnam, R.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35-42.

Wilkinson, K. P. (1991). *The Community in Rural America*. New York, NY: Greenwood Press.

Wong, S. (2012). *What Have Been the Impacts of World Bank Community-Driven Development*. New York, NY: World Bank.

Yin, R.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신경식·서아영·송민채 역. (2016). 「사례연구방법」(5판). 서울: 한경사.

Yin, R., & Davis. D. (2007). Adding New Dimensions to Case Study Evaluations: The Case of Evaluating Comprehensive Reform. In Julnes & Rog(Eds.). *Informing Federal Policies for Evaluation Methodology*. New York, NY: Jossey Bass.

〈신문기사 및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21). 공동체. https://stdict.korean.go.kr. (자료접근: 2021년 11월 07일).

유주현. (2017/03/20). 홍천 내면 나물 축제전면 취소.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44451 (자료접근: 2021년 11월 07일).

「문화재보호법」(법률 제15827호).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4772호).

〈열목어마을 자료〉

「대동회 회의록」.
「대동회 및 마을회의 등록부」.
「명개리 노인회 규약」.
「명개리 부녀회 규약」.
「명개리 부녀회 회의록」.
「명개리 마을 주민 규약」.
「명개리 마을 회의록」.
「명개리 마을회 정관」.
「열목어마을 농촌치유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열목어마을영농조합법인 정관」.
「열목어마을영농조합법인조합원 명부」.
「열목어마을영농조합법인 의사록」.
「열목어마을영농조합법인 회의록」.
「열목어마을영농조합법인 지출내역서」.
「열목어마을 운영 규약」.
「열목어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료」.
「열목어마을 회의록」.
「조건불리지역직불금 회의록」.

접수일(2022년 06월 30일)
수정일(2022년 08월 22일)
게재확정일(2022년 08월 26일)

〈국문초록〉

공동체주도 발전 사례연구: 홍천군 열목어마을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공동체주도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공동체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체의 조직 및 활동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공동체주도 발전의 전개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동체주도 발전 패러다임에서 소홀히 다루는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는 강원도 홍천군의 열목어마을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어공공서비스에서 소외되고 관계 법령에 의해 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받는 산골마을이다. 열목어마을의 공동체주도 발전은 마을공동시설 부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부처의 공모사업 유치와 함께 Merchant(2010)가 제시한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구성원 간 합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열목어마을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들이 향상되었고,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서비스의 향상이 나타났다.

열목어마을 사례의 시사점은 첫째,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서 자체적인 공동체 정체성의 형성과 합의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견지할 수 있게 하며, 일관되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둘째, Coleman(1988)이 제시한 폐쇄적 연결망과 같은 마을 조직의 구성은 의사결정 및 참여에 있어 여러 조직 간 의견과 참여가 가능한 토대가 되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공개성, 상호 감시 및 기대를 확보하며, 갈등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한다. 셋째, 공동체주도 발전에 있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측면도 확보되어야 공동체 구성원의 사회적 화합과 연대가 강화될 수 있다.

주제어: 공동체주도 발전, 사례연구, 마을공동체, 열목어마을

이영규(李昤揆: 주저자)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재방재정, 지방행정서비스, 지역공동체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의 영향요인: 정치적 요인의 탐색(2019)',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정책오차 분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bishop4192@skku.edu).

배수호(裵壽鎬: 교신저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채펄힐)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동양행정철학, (지역)공동체, 환경정책, 지방재정 등이다. 최근 저작으로는 「산림공유자원관리로서 금송계 연구: 公有와 私有를 넘어서 共有의 지혜로」(2018), 「한국적 지역공동체 사례연구: 복내이리송계(福內二里松契)」(2019), 「진안군 중평(中坪) 마을공동체: 공동체 원형을 찾아서」(2022) 등이 있다(baes@skku.edu).